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유리 벽돌 조각에 담은 염원



장 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NEW WORKS》 설치전경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활 요건이다. 누구나 편히 몸을 누일 공간이 필요하고, 더 안락한 집을 원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부와 단절된 시간이 많아진 요즘, 집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프랑스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은 인류 문명 초기부터 사용된 최초의 건축 자재인 벽돌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인간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 개인전 'NEW WORKS'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단단하고 투박한 일반 벽돌이 아니라 깨지기 쉽지만 영롱한 유리 벽돌 작업을 선보인다.

벽돌은 인류의 가장 원시적이고도 본질적인 주거, 삶을 향한 굳은 염원을 은유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 혼란 속에서도 불변하는 아름다움의 진리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담았다.

전시장 중앙의 'Stairs to Paradise'는 유리 벽돌 조각으로 만든 계단 형태 작품이다. 공간을 향한 나지막한 계단은 지상 낙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을 떠올리게 한다.

전시일정(장소) 1월 31일까지(국제갤러리)
관람료 무료
☎ 02-3210-9872

작가는 “희망의 메시지와 재생에 대한 소망,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현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예술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혔다.

'Precious Stonewall' 연작은 유리 벽돌을 사각 형태로 쌓아 벽에 설치한 작품이다. 투명한 파란색과 어두운 파란색, 노란색과 에메랄드 초록색, 파란색과 회색 등 두 가지 색상을 조합했다.

유리, 황, 왁스 등 쉽게 형태가 바뀌는 재료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니엘은 다양한 시대와 장소의 의식 행위나 종교적 관습 등에서 영감을 얻는다.

유리 벽돌 작업은 2010년 인도 피로자바드 지역 유리공예 장인에게 전통 기법을 배우고 협업하기 시작했다. 집을 짓기 전 땅을 먼저 산 후 벽돌 더미를 쌓아 두는 현지인들의 관습도 작가에게 벽돌의 의미를 곱씹게 했다.

이번 개인전은 총 37점의 신작을 소개한다. 전시 제목은 신작을 공개한다는 의미와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희망을 중의적으로 나타낸다.

'루브르의 장미(La rose du Louvre)'는 꽃을 주제로 한 작업을 이어온 작가가 루브르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건축 30주년을 맞아 2019년 선보인 작품이다. 작가는 17세기 바로크 화가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 작품에 등장한 장미에서 영감을 받아 금박을 칠한 캔버스에 검정 잉크로 장미를 표현한 회화를 내놓았다.

유리구슬로 장미의 생동감을 드러내는 거울 유리 조각 '루브르의 장미(Rose of the Louvre)' 등 장미 회화 작업을 확장한 작품들도 전시된다.

축구를 사랑하는 영국 할머니 화가가 그린 손흥민

80대에 전성기를 맞은 영국 화가 로즈 와일리(86)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가 열린다.

영국에서 활약 중인 축구선수 손흥민이 등장하는 작품이 처음 공개된다.

1934년생인 로즈 와일리는 화가의 꿈이 있었지만 21세에 결혼해 가정주부로 살았다. 45세가 된 1979년 영국왕립예술학교에 입학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지만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매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는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고 76세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영국에서 가장 핫한 신예 작가' 중 한 명으로 뽑았다. 2013년에는 영국 테이트 브리튼 전시회를 통해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됐고, 2014년 영국 현대회화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존무어 페인팅 상을 받았다. 지금은 국제적인 스타 작가가 된 그는 세계 3대 갤러리 중 하나로 꼽히는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Hullo Hullo, Following on: 로즈 와일리展'은 회화, 드로잉, 설치미술 등 150여 점을 소개한다. 국내 관람객에게 특히 관심을 끌 만한 작품은 손흥민 그림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작가는 손흥민의 소속팀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팬이다.

손흥민을 그린 작품 10여 점을 이번엔 처음 선보인다. 손흥민의 골 세리머니 장면, 지난해 9월 사우샘프턴전에서 4골을 몰아친 손흥민을 표현한 그림 등이다. 가디언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한 손흥민 선수 그림도 있다.

로즈 와일리는 전시를 앞두고 손흥민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만감이 추진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두 사람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로즈 와일리는 마치 어린이아처럼 순수한 감성으로 밝고 유쾌한 화풍을 선보인다. 작가가 사랑한 일상의 순간들을 비롯해 영화, 뉴스, 광고에서 영감을 받은 장면, 소녀와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손흥민 등 축구를 소재로 한 작품도 따로 모았다.



Tottenham Colours, 4 Goals, 2020(Photo by Jo Moon Price)

전시일정(장소) 3월 28일까지(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5천원, 학생 1만3천원
☎ 02-733-2798



'타임 인 스페이스: 더 라이프스타일' 전시 전경

전시일정(장소) 1월 30일까지(PKM갤러리)
관람료 무료
☎ 02-734-9467

동서고금 미술품·가구·조명의 절묘한 조화

조선 제일의 매화 화가로 꼽히는 우봉 조희룡(1789~1866)의 '홍매도' 아래 고풍스러운 빈티지 오디오가 놓였다. 1940년대 제작된 미국 RCA 빅터 제품이다. 스피커는 네덜란드 필립스의 1973년산이다. 스피커에서는 백건우가 연주하는 슈만 음악이 흘러나온다.

오디오 옆에는 스웨덴 디자이너 앤더스 페르손의 1960년대 황동 소재 조명기구가 있다. 반대편에는 서승원의 회화 '동시성'(2017)이 걸렸다. 시대와 장소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동서고금의 다양한 미술품과 가구, 음악이 어우러졌다.

'타임 인 스페이스: 더 라이프스타일' 전은 다양한 시기에 탄생한 미술품이 현대적인 공간에서 생활 속 가구, 소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준다. 17세기 혹은 18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장동팔경 세심대'는 권대섭의 2019년작 '달항아리', 핀란드 디자이너 헬레나 티넬의 1960년대 조명과 만났다.

이밖에 윤형근, 백현진, 정영도 등의 회화와 미국 작가 안드레아 지탈의 책꽂이 조각, 조선 시대 목가구,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리의 의자, 영국 작가 대런 아몬드의 거울, 조선 학자 신희의 서신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합을 맞춘다.

이들은 갤러리에 전시된 하나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대, 장르와 호흡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안 어울릴듯한 작품들이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PKM갤러리는 "시간성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공존하고 서로 공명함으로써 그 공간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인문학적 성찰과 미적 쾌감을 제공하는 스토리텔링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욕망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히어로 '원더우먼 1984'



여러 차례 개봉 연기 끝에 베일을 벗은 영화 '원더우먼 1984'는 인류 애라는 영웅의 본질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히어로물이다. 선명한 붉은색과 푸른색, 황금색이 조합된 의상을 입고 머리에 티아라를 쓴 원더우먼은 대형쇼핑몰에서 도둑들을 단번에 제압하며 산뜻하게 등장했다가,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멸망의 위기에서 인류를 구원해낸다.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84년을 배경으로 한다. 전편인 '원더우먼(2017)'의 시대적 배경보다 70여 년이 지난 시기다. 제목에 특정 연도를 명시할 정도로 이번 편에서 시대적 배경은 주제 의식을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다.

1980년대는 인류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상업화가 고도화되는 시기였다. 인류는 과잉 상태에 도달했지만, 끝을 모르는 욕망으로 더 많은 것을 갈망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빌런(악당) '맥스 로드'는 이런 시대가 낳은 괴물이다.

영화는 전편 이후 고고학자 다이애나 프린스로 사는 원더우먼이 욕망에 사로잡혀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맥스 로드의 광기를 멈추고,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다.

전편에서 인류의 멸망이 전쟁의 신 아레스로부터 촉발됐다면, 이번 편에서 벌어진 세상의 혼란은 소원을 이뤄주는 광물인 황수정을 맥스 로드가 차지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여기에 또 다른 빌런 '치타'가 등장한다. 보석학자이자 지질학자, 동물학자인 바버라 미네르바의 또 다른 자아인 치타는 DC코믹스에

서 원더우먼의 가장 막강한 라이벌 중 하나다. 평소 다이애나를 부러워해 오던 바버라는 황수정을 통해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원더우먼과 맞서 싸우게 된다. 두 빌런 맥스 로드와 치타에게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DC 캐릭터의 특징이 깊게 배어 있다.

어떻게든 성공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던 맥스 로드와 외톨이 삶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었던 치타는 악당이지만, 어딘가 짝하고 공감이 가는 캐릭터다.

예고편에서 공개된 것처럼 전편에서 죽었던 원더우먼의 연인 스티브 트레버가 살아 돌아오는데, 그의 환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기 싫다는 욕망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원더우먼의 고뇌와 선택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든다.

영화 도입부, 아이맥스 촬영이 도드라지는 데미스키라 섬에서의 경기 장면이 강렬하다. TV 시리즈에서 원더우먼 역을 맡았던 '린다 카터'가 특별출연한다.

감독 패티 젡킨스
출연 갤 가돗, 크리스 파인, 크리스틴 위그, 페드로 파스칼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2020년 12월 23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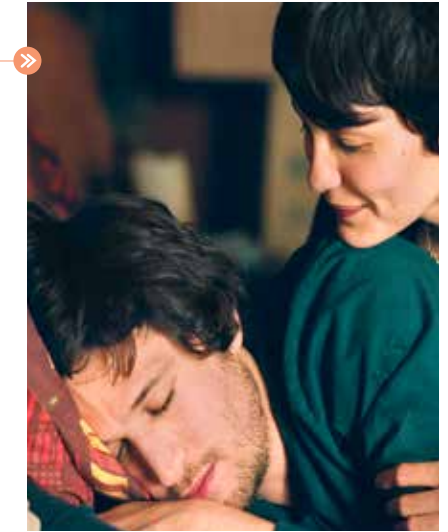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 안나 가발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함께 있을 수 있다면'(2007)이 13년 만에 국내 관객을 만난다. 어느 때보다 타인의 온기가 그리운 코로나 시대,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어울리는 따뜻한 영화다.

27살의 화가 지망생이지만 환경미화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카미유는 같은 건물에 사는 필리베르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구가 된다. 귀족 집안 출신인 필리베르는 불안증 때문에 말을 더듬고, 그의 룸메이트인 요리사 프랑크는 하루 쉬는 날 부모 대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성격을 가진 세 사람이 서로의 상처와 결핍이 서로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 사이의 연민과 우정, 사랑이 커진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서로 오해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화의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해피엔딩이 스산하고 힘겨운 시절과 계절에 위안이 되어준다.

감독 클로드 베리
출연 오드레 토투, 기욤 카네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2020년 12월 24일



아이 엠 우먼

모든 것이 격동하던 1970년대,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악으로 여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헬렌 레디와 그의 노래 '아이 엠 우먼'을 통해 헬렌의 삶과 시대상을 섬세하게 들여다본다.

호주 출신인 헬렌은 200달러를 들고 세 살배기 딸과 함께 뉴욕으로 건너와 무명 가수 생활을 시작한다. 새로 만난 남편이자 매니저 제프는 헬렌을 가정주부로 전락하게 만들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헬렌이 만든 '아이 엠 우먼'은 여성들의 절대적 지지로 빌보드 싱글차트 정상에 오른다.

감독 문은주
출연 틸다 코브햄-허비, 다니엘 맥도널드, 에반 피터스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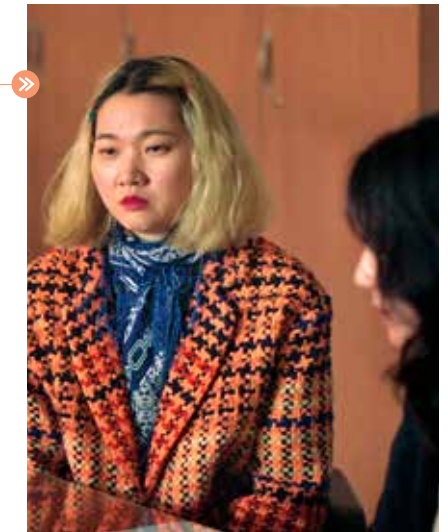


세 자매

각자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던 세 자매가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우아한 성가대 지휘자로 완벽한 척하지만 가식덩어리인 둘째 미연, 관참은 척하며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소심 덩어리 첫째 희숙, 언제나 술에 취해 있지만 안 취한 척하는 골칫덩어리 셋째 미옥.

부모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었던 자매들이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의 매듭을 풀어내며 폭발해 버린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에 선정되고, 지난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오늘-파노라마' 섹션에 초청받았다.

감독 이승원
출연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월 예정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파견 명령을 받아 하청업체로 가게 된 여성이 1년의 세월을 버텨내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사내에서 인정받는 우수 사원이었음에도 한순간 권고사직 대상자, 파견 근로자가 된 정은은 세상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맞선다. 자신을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낯선 현장에서 막내의 도움을 받아 한발씩 내디딘다.

막내를 연기한 오정세가 지난해 6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받았다.

감독 이태경
출연 유다인, 오정세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1월 예정



블랙핑크, 온라인 콘서트 유튜브뮤직 손잡고 전 세계 중계



공연일정(장소) 1월 31일(유튜브)
관람료 3만6천~4만8천원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오른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후 처음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선보인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라이브스트림 콘서트 브랜드인 'YG 팝 스테이지'의 첫 주자로 블랙핑크를 낙점했다. YG는 유튜브뮤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유튜브를 통해 콘서트 영상을 송출한다.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유튜브뮤직과 손잡고 유튜브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생중계하는 것은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2016년 싱글 '스퀘어 업'으로 데뷔한 블랙핑크는 '뚜두뚜두'와 '포에버 영'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큰 주목을 받았다. 전형적인 걸그룹과는 다르게 힙합 장르를 기반으로 한 음악을 선보이는 이들은 이른바 '걸크러시' 콘셉트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게 특징이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차츰 두각을 나타내다가 2019년 미국 유명 음악 축제인 '코첼라'에서 한국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무대를 펼치며 얼굴을 알렸다. 특히 유튜브에서 강세를 보여 '유튜브 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블랙핑크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은 저스틴 비버뿐이다.

지난해는 블랙핑크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한 해였다.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와 협업곡 '사워 캔디'를 발표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33위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뒤이어 정규 1집 선공개곡인 '하우 유 라이크 댓'은 피처링 팝 가수 없이도 이 차트에서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셀레나 고메스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으로 13위에 올랐다. 이들의 정규 1집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세계 걸그룹 가운데 12년 만의 최고 순위인 2위로 데뷔했다. 이런 성과로 일부 해외 매체는 블랙핑크가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신인상 후보에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블랙핑크는 가장 최근 발표한 신곡인 '러브식 걸즈'를 비롯해 '하우 유 라이크 댓', '아이스크림' 그리고 히트곡인 '킬 디스 러브', '뚜두뚜두'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우림



국내 대표 혼성 밴드인 자우림이 오랜만에 팬들과 만난다. 독특한 음색의 보컬 김윤아를 필두로 이선규(기타), 김진만(베이스)으로 구성된 자우림은 1997년 데뷔해 올해로 24년 차를 맞았다. 멤버 변동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밴드를 유지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매우 드물다. 그만큼 멤버 간 '케미'가 잘 맞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덕에 뛰어난 연주 실력과 보컬로 탄탄한 라이브를 자랑한다. 대표곡으로 '스물다섯, 스물하나', '미안해 날 미워해', '봄날은 간다', '매직 카펫 라이드' 등이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여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2년 만의 신보 '홀라!'를 발매해 음악 팬들을 설레게 했다.

공연일정(장소) 1월 29~31일(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관람료 11만~13만2천원
☎ 1544-1555

딕펍스



5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 딕펍스의 밴드 사운드에 몸을 실어보자. 딕펍스는 2015년 내놓은 '29'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미니앨범 '오디너리 데이즈'(ORDINARY DAYS)를 발표했다. 김재홍(베이스), 김태현(보컬), 김현우(키보드), 박가람(드럼) 4인조로 구성된 이들은 2007년에 데뷔했지만,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4'에서 준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불후의 명곡', '유히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음악적 역량을 뽐내기도 했다. 키보디스트가 있으면서도 기타리스트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대표곡으로 '비바, 청춘', '안녕 여자친구', '평행선' 등이 있다.

공연일정(장소) 1월 16~17일(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관람료 9만9천원
☎ 1544-1555

데이브레이크



경쾌한 음악을 선보이는 록밴드 데이브레이크가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공연을 펼친다. 2013년부터 브랜드 공연 '서머 매드니스'를 통해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은 아쉽게도 지난해 여름에는 공연을 열지 못했다. 그 대신 '땀 배(×)의 즐거움을 함께 나눠서(÷) 널리 이롭게 하자'는 의미의 소규모 공연 '프로젝트데이브레이크 × SHOW'로 돌아온다. 어느덧 데뷔 15년 차인 이들은 '좋다', '들었다 놔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등을 히트시키며 인디 음악계를 대표하는 밴드로 성장했다.

공연일정(장소) 1월 8~10일(엠피엔지)
관람료 6만6천원
☎ 1544-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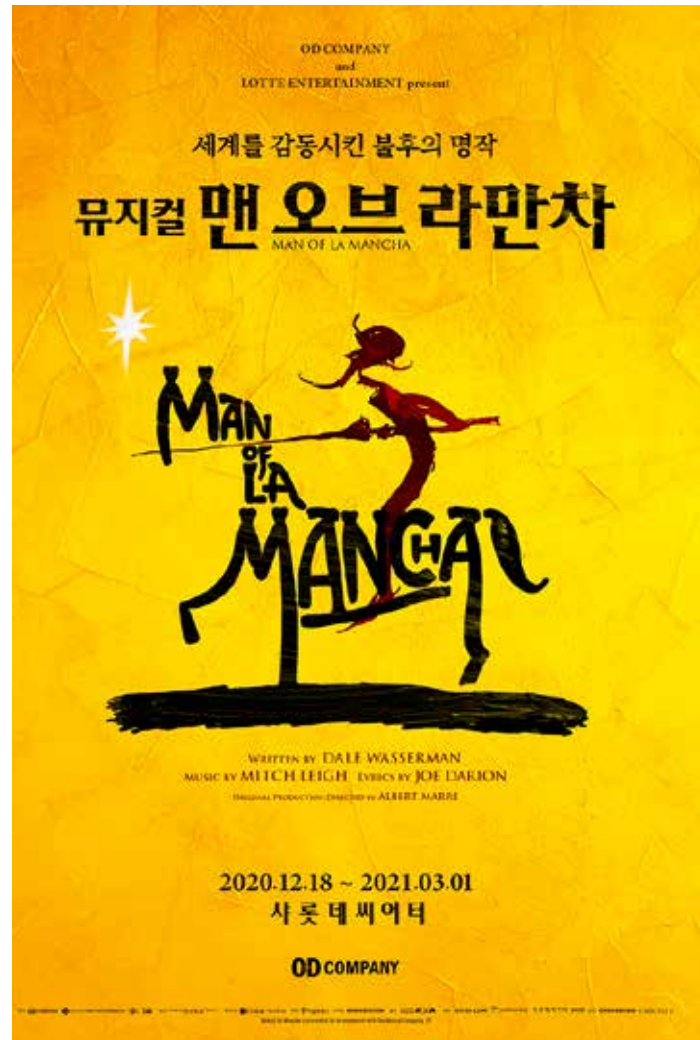
비투비포유



아이돌의 댄스 음악과 함께 집에서 춤추고 싶다면 이 공연을 보자. 보이그룹 비투비의 첫 유닛인 비투비포유가 결성 후 처음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선보인다. 국방의 의무를 먼저 마치고 돌아온 서은광, 이민혁, 이창섭과 미국 국적인 프니엘 등 '형 라인'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미니 1집을 발표했다. 비투비는 처음에 밴드로 데뷔하려고 했던 만큼 보컬과 악기 연주 실력이 뛰어난데, 여기에 춤 실력까지 갖췄다. '그리워하다', '너 없인 안 된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등 대중적으로 흥행한 곡이 많아 이른바 3세대 아이돌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공연일정(장소) 1월 23일(중계 링크 추후 공지)
관람료 3만9천원
☎ 1544-1555

돈키호테가 전하는 꿈과 희망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공연일정(장소) 미정~3월 1일(사롯데씨어터)
관람료 5만5천~7만7천원
☎ 1577-3363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며 400년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영원불멸의 고전인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토대로 한 '맨 오브 라만차'가 막을 올린다.

2005년 초연 이후 9번째 시즌으로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꿈꾸는 백발 기사의 여정이 무대 위에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당초 지난해 12월 18일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개막일을 연기한 상태다. 아직 정확한 개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맨 오브 라만차'는 자신을 '돈키호테'라는 기사로 착각하는 괴짜 노인 '알론조 키하나'와 그의 시종 '산초'의 모험을 담고 있다. 꿈을 잊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꿈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전한다.

초연 이후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대작인 만큼 국내 뮤지컬 최정상 배우들이 출연한다. 주인공인 돈키호테 역은 무대 위에서 존재감을 빛내는 배우 류정환과 탄탄한 연기력을 지닌 조승우, 중후한 저음부터 강렬한 고음까지 폭넓은 음역과 가창력을 자랑하는 홍광호가 맡았다. 세 배우 모두 앞선 시즌에서 돈키호테 역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들의 목소리로 뮤지컬의 대표 넘버(노래)인 '이룰 수 없는 꿈'(The Impossible Dream)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감동을 더한다. 곡의 가사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는 관객들에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다시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돈키호테의 환상 속 아름다운 여인 알돈자 역은 윤공주, 김지현, 최수진이 연기한다. 돈키호테의 충성스러운 시종 산초 역에는 이훈진, 정원영이 캐스팅됐다.



뮤지컬 '히드클리프'

소설 '폭풍의 언덕'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히드클리프'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19세기 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1847)을 원작으로 한다. 소설은 모순과 혼돈이 뒤섞인 인간 본성을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뮤지컬은 황량한 들판의 언덕 위 저택에 살게된 고아 히드클리프가 저택 주인의 딸 캐시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큰 줄거리로 한다. 히드클리프의 왜곡된 사랑을 웅장한 음악과 미장센으로 표현한다.

공연일정(장소) 1월 27일~2월 7일(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5만5천~7만7천원
☎ 02-6954-0772

뮤지컬 '그래피티'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의 일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 '그래피티'가 관객들을 만난다.

뱅크시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104만파운드에 낙찰된 작품 '풍선과 소녀'를 경매 종료 직후 파쇄한 일화로 유명한 그래피티 예술가다.

뮤지컬은 얼굴 없는 그래피티 예술가로 활동하는 나비스와 그의 작품 속 매력에 빠진 타일러,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타일러의 아버지 클라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풀어간다.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됐다.

공연일정(장소) 12월 23일~1월 3일(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5만5천~7만7천원
☎ 1577-3363



피아니스트 김선욱 지휘자 데뷔 정경화와 듀오 무대도



벤 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 첫 수혜자로 선정돼 소장품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도 했다.

베토벤 스펙셜리스트로 통하는 그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베토벤의 '안단테 파보리'와 후기 피아노 소나타 3부작(30~32번)을 휴식 시간 없이 연주한다. 베토벤은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비창(8번), 월광(14번), 템페스트(17번), 발트슈타인(21번), 열정(23번), 고별(26번) 등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후기 소나타는 다소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다른 곡들과 달리 자주 연주되지 않는 편이다.

지휘자 데뷔 무대에서는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과 브람스 교향곡 2번을 지휘하는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면서 지휘도 병행한다. 특히 2010년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 석사과정에 입학해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후 첫 지휘 무대라서 주목을 받는다.

김선욱은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올해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LA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연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의 협연에서는 작곡가 진은숙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키릴 카라비츠가 이끄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투어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경화와의 듀오 무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도 한 차례 듀오 무대를 열고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1~3번)을 연주한다.

정경화는 지난 40여 년간 데카와 RCA, 도이치 그라모폰, EMI 등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를 통해 협주곡에서 실내악에 이르는 총 33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1997년에는 EMI를 통해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발매해 클래식 음반계 최고상 중 하나인 디아파중 황금상을 받았다. 1992년 영국 선데이타임스의 '최근 20년간 가장 위대한 기악 연주자'에 선정됐고, 1995년 아시아위크가 뽑은 '위대한 아시아인 20인' 가운데 클래식 연주자로 유일하게 오르기도 했다. 2017년에는 크라이슬러, 그뤼미오, 밀스타인 등과 함께 그라모폰 명예의 전당 바이올린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공연일정(장소) 리사이틀 1월 11일(롯데콘서트홀), 김선욱&KBS교향악단 1월 12일(롯데콘서트홀), 정경화&김선욱 듀오 1월 19일(롯데콘서트홀)
관람료 리사이틀 3만~10만원, 김선욱&KBS교향악단 5만~12만원, 정경화&김선욱 듀오 4만~12만원
☎ 02-599-5743(반체로), 1544-7744(롯데콘서트홀)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연기했던 공연을 새해에 잇달아 진행한다. 지난해 3월과 9월, 12월 세 차례 계획했다가 취소한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리사이틀 무대도 다시 갖는다.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지휘자로 데뷔하고, 세계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의 듀오 무대에도 한번 더 오른다.

김선욱은 2006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및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우승하며 명성을 얻었다. 이후 런던 심포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09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시작으로 2012~2013년에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했고, 2017년에는 베토벤 3대 피아노 소나타 리사이틀을 열었다. 2013년 독일 본의 베토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첫 앨범 '모차르트' 발매 기념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지난해 11월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데카(DECCA)에서의 첫 스튜디오 앨범 '모차르트' 발매를 기념해 지난달 30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그는 2017년 6월 '북미 쇼팽 콩쿠르'라고 불리는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1958년 구 소련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미국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이 우승한 것을 기념해 만든 대회로 4년마다 열린다.

선우예권은 당시 하이든의 소나타 C장조, 리스트 편곡의 슈베르트 가곡 '리타나이', 라벨의 '라 발스',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 등 콩쿠르 실황 연주를 담은 음반을 낸 적은 있지만, 스튜디오 앨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모차르트' 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는 "모차르트는 인생의 모든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작곡가이고 어떤 작곡가들보다 다양성이 있다"며 모차르트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앨범에 수록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과 론도, 판타지를 선보인다. 또 쇼팽의 녹턴과 환상곡, 뱃노래 등도 연주한다.

공연일정(장소) 1월 15일(대전예술의전당), 1월 23일(부산 영화의전당), 1월 24일(대구 수성아트피아), 1월 26일(롯데콘서트홀), 1월 28일(울산 현대예술관), 1월 29일(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
관람료 2만~10만원
☎ 02-541-3173

서울시립교향악단, 성시연 지휘로 모차르트의 '레퀴엠'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부지휘자(2009~2013)를 지낸 성시연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연주한다. 성시연은 2019년 8월 '서울시향 광복 74주년 기념음악회'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서울시향과 만난다.

미국 보스턴심포니 137년 역사상 첫 여성 부지휘자, 서울시향 첫 여성 부지휘자 등 이력의 성시연은 2014년부터 4년간 경기필하모닉을 이끌 때 국내 국공립 오케스트라의 첫 여성 상임지휘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기공연 시즌'이라는 이름으로 1~4월 일정(13회)만 먼저 공개했는데 성시연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가 올해 첫 공연이다.

레퀴엠은 '안식'을 뜻하는 라틴어이자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진혼곡인데, 서른다섯에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가 미완으로 남긴 유작이다.

소프라노 홍혜란과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강요섭, 국립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향은 이 밖에 하이든의 교향곡 '슬픔'도 연주한다. '슬픔'은 하이든이 생전에 가장 아낀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연주해달라고 요청한 곡이다.

공연일정(장소) 1월 21~22일(롯데콘서트홀)
관람료 1만~7만원
☎ 1588-1210, 1544-7744





우리의 하루는 건물에서 시작해서 건물에서 끝난다. 집에서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하루는, 학교, 회사, 학원, 식당, 쇼핑몰, 체육관 등의 건물을 거쳐 집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건물들은 너무나 익숙하기에 그저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건축물에는 인류 역사만큼의 오랜 시간과 깊이가 담겨있다. 이 책은 건축물 안에 숨겨진 인류의 발명품들을 주목한다. '계단과 벽돌'로 시작된 이야기는 '문, 경첩, 못, 망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현대의 엘리베이터와 공기조화 장치인 'HVAC시스템'까지 흘러간다. 단순해 보이는 하나의 건축물 속에서 저자가 발견해낸 '착지만 위대한 발명'은 총 18가지다. 18가지 건축 요소에 대한 저자의 애정과 친절한 설명은 건축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확장한다.

김예상 지음/ 엠아이디 퍼냄/
352쪽/ 1만6천원

로켓 발사가 엔진 결함으로 실패하면서 연구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난 쓰쿠다 고헤이. 그는 이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업인 변두리 중소기업 쓰쿠다제작소를 경영하게 된다. 연구 실패로 인한 절망감에다 이혼으로 쓰쿠다는 더욱 초라한 처지가 된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손수 개발한 엔진을 장착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릴겠다는 꿈이 살아있다. '한자와 나오키'로 유명한 일본 작가 이케이도 준의 장편소설 '변두리 로켓'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변두리 동네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력과 우직한 끈기를 무기 삼아 우주로켓의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경쾌한 필치로 그려낸다. 2011년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나오키상을 받으며 대중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드라마로도 제작돼 시청률 1위에 올랐고, 후속으로 출간한 세 편의 작품도 모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시리즈 4권이 누적 판매량 350만 부를 돌파했다.



이케이도 준 지음/ 김은모 옮김/
인플루엔셜 퍼냄/ 428쪽/ 1만5천800원



'바람의 딸'로 알려진 국제구호활동 전문가 한비야가 남편 안톤과 함께 쓴 책. 결혼 3년차를 맞이한 부부의 실험적 생활 이야기다. 한비야와 안톤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의 한 긴급구호 현장에서 동료로 만나 멘토, 친구, 연인 관계를 거쳐 2017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336타임'이란 기준을 세우고 1년에 3개월은 한국, 3개월은 네덜란드에서 함께 지낸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각자 따로 지내는 '자발적 장거리 부부'다. 한 사람은 은퇴 후 네덜란드에 정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한국에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50대 50. 이것은 부부가 집을 살 때도, 음식 계산을 할 때도 적용하는 룰이다. 책에 나오는 한비야의 유언장에도 이 룰이 적혀 있다. 유골의 반은 한국에, 반은 네덜란드에 뿌려달라는 것이다. 책의 인쇄 수입도 50대 50으로 나뉘었다. 절반은 기부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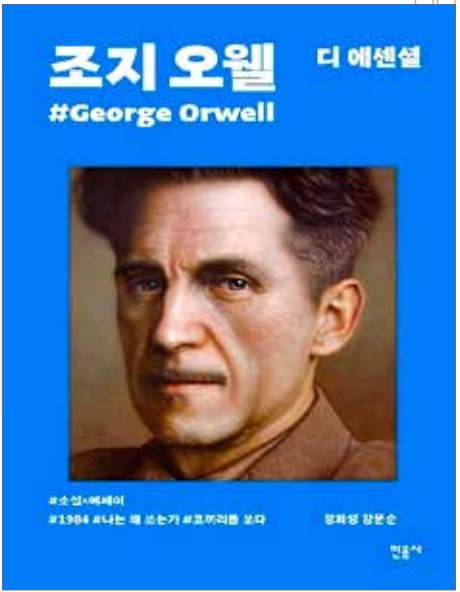
한비아, 안토니우스 반 주트펀 지음/
푸른숲 퍼냄/ 328쪽/ 1만5천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반가운 친구를 만났을 때, 지루한 회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찾는 것은 바로 그윽한 커피 한 잔이다. 커피를 마시며 힐링하고, 대화를 나누고, 업무에 집중한다. 커피는 단순한 기호 음료가 아니다. 한 알의 커피콩에는 가난한 원주민들의 삶과 고뇌, 전통과 문화가 눈물처럼 배어 있다. 그 콩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배분되는 커피 로드에는 자본과 민주주의, 환경과 노동의 문제도 동시에 흘러 다닌다. 문화와 예술과 학문 또한 그 길을 따라 여행한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탐방했던 파푸아뉴기니의 커피 농장과 일본의 커피와 맛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형제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터키의 전통과 맛도 만날 수 있고, 남미의 파라과이와 이구아수 폭포에 대한 내용도 양념으로 곁들여진다.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와 스프링크스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취해 입을 다물지 못한 동시에 극심한 교통지옥을 맛봐야 했던 경험담을 풀어놓는다.

장상인 지음/ 이리야집 퍼냄/
256쪽/ 1만8천원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인 조지 오웰의 산문과 소설 대표작을 한 권으로 읽는다. 민음사와 교보문고가 공동 기획한 '디 에센셜' 시리즈 첫 편으로 출간된 '디 에센셜 조지 오웰'은 대표 소설 '1984'와 에세이 일곱 편을 한 데 엮은 책이다. '정수'라는 책 제목처럼 오웰 작품 세계의 핵심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웰의 대표 소설이 '1984'냐, 아니면 '동물농장'이냐를 놓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더 많이 거론된 작품이 '1984'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한다. '빅 브라더'가 '사고 경찰'을 통해 다수 대중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1984'는 팬데믹으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현 시국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고전 중 하나다.



조지 오웰 지음/ 정희성, 강문순 옮김/
민음사 퍼냄/ 668쪽/ 1만8천원



기후 변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흘러든곤 한다. 인식하기 어려운 범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같은 '이해 불능의 문제'와 '진정한 이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자는 어떤 말과 글로 다가가야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색다른 집필로 책 쓰기에 나섰다. 과학적 태도와 시각을 유지하되 시적이면서도 신화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책은 사라진 것들과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뤄져 있다. 북유럽 신화 '에다'의 창조 이야기, 인도 신화 '베다' 이야기, 아이슬란드의 근현대사와 사회체제 이야기, 중국과 인도-티베트-히말라야 이야기, 멸종 위기에 처한 악어 이야기 등이다. 저자는 허구의 이야기와 역사의 이야기를 엮어 인류에게 닥친 위기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풀어낸다.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 지음/
노승영 옮김/ 북하우스 퍼냄/ 376쪽/ 1만7천원